

로버트 C. 뉴먼 박사, 기적, 세션 6, 인간 영역에 걸친 예수의 기적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좋아, 우리는 기적과 예수의 기적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감을 없애십시오.

좋아, 우리는 기적과 예수의 기적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에 관한 네 번의 강의를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의 기적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살펴본 다음, 기독교계에서 성경 외의 기적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과학과 신학적 자유주의의 발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기적에 대한 반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다섯 번째 강의로 자연계를 통한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했고,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인간계를 통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질병과 죽음을 다루는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적에는 귀인의 아들을 고치신 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백부장의 하인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함,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베데스다 못에서 난 소경을 고치신 일, 손 마른 사람, 나병환자 열 명, 귀먹고 병어리 된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IBRI 웹사이트 www.ibri.org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PowerPoint 강연에는 없는 일부 내용만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귀인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4장 46-50절이 있습니다. 그 분 곧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와서 오셔서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왕의 신하가 이르되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 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그가 아직 길에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 나왔는지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제 일곱 시에 열이 떨어졌더라 .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때인 것을 깨달았다 .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이르러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글쎄요, 그 작은 행사의 역사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돌아오신 후의 일이다. 아버지의 간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준 자유주의적인 설명으로, 예수께서는 텔레파시로 그 소년에게 살 의지를 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종류의 일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정신신체적 치유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성의 증거.

이것은 왕실의 관리이거나 왕실의 친척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8장 3절을 선택한 사람이었는가? 모르겠어요. 47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아래 호숫가에 있고, 가나는 언덕 위에 있고 약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는 지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버지가... 일곱 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John이 어떤 종류의 시간 표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방향에 대한 내 생각은 일부 구절을 살펴본 후 요한이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로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침 일곱 시, 저녁 일곱 시이고, 어제였으니 아마도 저녁 일곱 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다음 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발전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47절에 그는 예수께서 내려오시기를 원하다가 50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살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병이 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52절을 보면 그 결과로 그가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절. 목격자들의 반응. 아버지만이 사건의 양면을 모두 보았지만 독립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열병이 갑자기 그쳤다는 것을 집 하인들이 알았고, 아버지와 집이 모두 믿었습니다. 구약 배경. 이와 비슷한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음, 민수기 21장의 뱀의 치유,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의 문둥병,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문둥병, 이것들은 모두 치유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의 치유, 1장의 아비야의 치유에 관한 요청 열왕기 14장, 그리고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나아만이 멀리서 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즉, 나아만이 실제로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말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저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언약의 저주에는 질병과 열병이 포함됩니다. 레위기 26:16.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율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멸시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공포와 소모적인 질병과 열병을 내려 너희의 시력을

않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심었는데 너희 원수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될 것이다.

중요성. 음, 즉각적인 효과.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의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 장소는 약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나음(52절). 아버지가 믿게 됨(47, 48, 50, 53절).

또한 가계(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았고,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는 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두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입니까? 첫 번째 것은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병을 고치셨다고 암시합니다. 아마도 두 번째 갈릴리 별자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첫 번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상징적인 요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브라함과 대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아버지는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종종 창조를 뒤돌아보거나 시대의 끝을 내다봅니다.

글쎄요, 치유의 모든 기적은 확실히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한 질병과 죽음을 되돌아보는데,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되돌리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또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더 이상 질병과 죽음 등이 없을 세상 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간 영역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의 두 번째 사례인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십시오. 저는 여기 마가복음 2장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께서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밖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께 데리고 왔더라. 군중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위에 있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내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즉시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 행사의 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마태와 마가의 차이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마태의 회심 직전이었습니다. 역사성의 증거. 이것은 세 복음서에서 서로 복사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모호하지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남성의 수는 상당합니다. 그 중 4명이 그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네 사람이 들고 있었습니다. 4명 말고도 몇 명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지봉을 여는 것은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목격자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한다는 주장에 불평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자 그들은 분명히 침묵합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물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건의 독특함과 기묘함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이 거짓 예배 센터를 대적하러 올라온 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오그라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스라엘이 구속될 때에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유사점.

레위기 21:18에서는 절름발이와 그런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한다면 당신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중요성. 즉각적인 효과.

그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Harder에 대한 그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누군가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까지 그 죄가 용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 후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한 장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요소? 종말을 가리키는 이사야 35장 6절을 비교하라.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의 혀는 기뻐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원할 경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행하신 일을 언급하거나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나이. 이 절름발이는 원한다면 사슴처럼 도약합니다. 우리는 인간 영역에 대한 세 번째 기적,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NIV 각주에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아니라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말했다. 깨끗하세요. 그는 즉시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사건의 역사성. 때때로 마태복음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8장 뒤에 놓는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모호하지만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다.

그 동료는 질병의 정확한 본질에 관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유로운 설명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용어는 그 자체로 여러 유형이 있는 한센병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좀 더 온화한 형태와 일종의 심리적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 사건이 산상 수훈이 있었던 곳 근처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갈릴리 여행 중 가버나움에서 나갔습니다.

반응? 목격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병환자는 너무도 압도되어 자신의 치료 소식을 전파하지 말라는 예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3-45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서 네 자신을 보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왜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병을 일으킨 사람이 밝혀지기 전에 분명히 나병이 깨끗해졌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 사이에 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미 그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 우리에게도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내었다가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라. 출애굽기 14.

민수기 10장에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구약성서에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다른 유사점? 누가복음 13장은 구약의 나병 진단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그리고 레위기 14장에는 정결의 간증, 정결의 예식이 실려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비교하면

정결 예식은 8일 동안 진행되며 몇 가지 최종 제물이 포함됩니다. 의미
 즉각적인 효과: 그 사람은 깨끗해지며 그의 믿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보이고, 율법과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잘못된 종류의 홍보를 피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사처럼 구원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나병환자를 고치는 분이 이 땅을 거닐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대신 깨끗해진 나병환자를
 만지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과 평행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그 부정함을 스스로 떠맡으셨을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고 어쨌든 그런 종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른다. 상징적 요소 놀랍게도 나는 평생 동안
 들어왔지만 나병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편 51편 5절부터 7절까지는 분명히
 나병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있었나니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있었느니라. 진실로 당신은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며 내 깊은 곳에서 지혜를 가르치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다윗이 묘사한 일종의 정결 의식을 볼 수 있지만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는
 명시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불합리한 추측은 아니지만, 나는 그 증거가 내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서의 치유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얼마 후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는 아람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덮개가 있는 다섯 개의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 그리고 NIV의 메모가 지적인 것처럼 덜 중요한 사본이 추가되었으며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천사 군주가 내려와 물을 휘젓곤 했는데, 그러한 소란이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 치료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확실한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병이 오랫동안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 네가 낫고 싶느냐? ” 선생님,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휘저을 때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병이 낫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 안식일입니다.

법에서는 매트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군중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다시 나왔느니라 하시니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낮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더욱 힘썼다.

그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글썄요, 그 사건의 역사성, 그 기회는 유대인의 절기 동안에 여러 절기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림절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으로부터 몇 달에서 1년 후에 어느 절기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다리 저는 사람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유주의적 설명, 정신신체적 치유, 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에 반응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두 가지 표준입니다.

역사성의 증거: 1900년에도 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위치는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안식일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라면, 천사에 관한 4절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보면 그 장소가 서기 70년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목격자들의 반응, 그 사람 자신은 감사해 보인다(11절과 15절). 내 생각에 15절은 그가 악의가 있고 화를 내서 자리를 옮기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누구를 알아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예수께서 가서 이 일을 고하되 오히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만을 보고 나중에 17절에서 신성모독으로 보는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구약 배경. 비슷한 기적. 구약성서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만져서 살려냈습니다. 기타 자료, 많은 안식일 규정, 출애굽기 23장, 31장, 35장, 민수기 15장, 느헤미야 13장, 예레미야 17장. 여기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6:22-29.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함, 민수기 28, 9-10. 저는 사람은 구원이 올 때에 걸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35:6. 중요성? 즉각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와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그분의 행동과 주장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게 됩니다. 생명은 구원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공식 대표자들 앞에서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바탕으로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두십니다. 상징적인 요소. 한 가지 가능성은 안식일을 종말의 상징, 시대 종말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영장이 있습니다. 치유는 종말론적이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죽음 등을 치료하고 제거하실 것이라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특히 구속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었는지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범죄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면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실로암아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죄를 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눈은 어떻게 뜨고 있었습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보게 된 경위를 물으니라.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자 그 사람이 대답했고, 나는 씻었더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맹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있나요? 그가 열었던 것은 당신의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오기까지 눈을 뜨게 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던가요?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부모는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나이가 들었고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음이라.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가 나이가 많으니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소경이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을 보면, 이것은 진실을 말하거나 원한다면 고백하라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하였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다시 듣고 싶나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욱설을 퍼부으며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젖었느니라. 감히 우리에게 강의를 합니까? 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함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누구입니까? 그 남자가 물었다. 나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가 자기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소경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물었다. 우리도 장님인가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되어도 죄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 그것은 인상적으로 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에 설명된 초막절이든 10장에 설명된 수전절인 하누카이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8절). 제자들은 묻습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십니다.

자유로운 설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신. 역사성의 증거.

글쎄, 랍비, 바리새인, 실로암이라는 용어. 침과 진흙 만들기와 관련된 안식일 논쟁. 조사, 파문의 세부 사항.

히브라이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 7.19를 비교하라. 맹인, 부모, 이웃,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행동에 관한 인간 심리의 통찰력 있는 그림입니다. 목격자들의 반응.

맹인의 믿음이 자라고 바리새인의 불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시점에서 여전히 분열되어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분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께 호의적이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광고하기를 꺼려합니다. 동료의 신원을 둘러싸고 이웃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우리는 어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기적? 구약성경에 소경을 고치는 사례가 전무하니,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니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레이션은 없나요? 다른? 출애굽기 4장 11절과 시편 146편 8절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고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에는 세상 끝날에 소경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 이사야의 종의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의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먼 사람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4:11, 1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누가 그를 귀머거리나 병어리로 만드느냐? 누가 그에게 시력을 주고 눈멀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세요.

나는 당신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시편 146.8 여호와께서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느니라.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맹인이 그를 고쳤습니다. 에스카톤, 이사야 29.18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침함과 어둠 속에서 소경의 눈이 볼 것입니다. 이사야 35:5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종의 말씀 이사야 42장 5-7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땅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펴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시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느니라.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 먼 눈을 뜨게 하소서. 감옥에서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 주십니다.

글쎄, 기적의 의미. 다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멀리 쫓겨납니다. 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매우 강력한 증거를 다루기를 거부하면 결국 더욱 반대하고 더욱
 독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 역사의 한 장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세, 엘리야, 엘리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강력한 주제를 봅니다. 상징적인 요소.
 챕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꽤 명확합니다.

통로가 끝나면. 물리적인 빛과 시각. 어둠과 실명.

영적 비전과 영적 실명을 옹호하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39-4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42:16-19과 이사야 59:10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진흙을 만들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 내가 이것에 대해 처음으로 한동안 생각한 지 몇 년 후에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먼지가 많은 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빚는다. 야 차르 입니다 . Potter 의 명사 형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흙을 만들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은 동료의 비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재현하기 위해 점토를 만드는 예수의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를 이곳에 살리신 분이십니다. 원할 경우 동료의 눈 위에 점토를 바르고 그의 비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나사로를 키우는 것.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들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랍비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낮에 걷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밤에 다닐 때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주여 자면 낮겠 나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자연적인 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그러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매 예수께서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마일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빠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여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나는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네, 주님,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따로 불러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이제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오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느니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이르러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눕혔느냐고 그가 물었다. 와서 주님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입구에 돌이 깔려 있는 동굴이었다. 돌을 치워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그곳에 있는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으나 내가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손과 발을 베로 감싼 채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수의를 벗기고 가게 하라 . 그러므로 마리아를 방문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나요? 그들은 물었다.

여기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였다. "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니라 .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죽으사 그 민족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은 그의 목숨을 빼앗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사건의 역사성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달 전의 사건입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기 전에 이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자유로운 설명: 나사로는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소생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음모.

혹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화나 우화였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의 위치와 다른 지명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맹인에 대한 적들의 반응을 포함한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모두 이것의 역사성에 부합합니다. 목격자들의 반응.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합니다. 비슷한 기적.

구약 배경.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키다(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의 뼈에 의한 사람의 부활. 이들 모두는 최근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아마도 그로부터 사실상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부정함이 전달됩니다(민 19:11-12). 부활에 관한 종말론적 자료, 다니엘 12장부터 이사야 26-19장.

23-26절에서 이 부활은 세상의 끝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성. 중앙값 효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두십시오. 다른 부활 기록에 추가된 유일한 내용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술뿐입니다. 사소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요소. 여기서 종말론적 의미는 23-26절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기 이틀 전에 왜 남아 계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미 무덤 에 있는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 분명히 나사로는 그 사자가 예수께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자에게 이것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예수의 대답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자가

돌아왔을 때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글썄, 그것은 인간 영역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예 중 일부에 대한 간략한 둘러보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후에 살펴보고 싶은 영역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영계에 대한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 두겠습니다.